

# 여대생의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보경<sup>1</sup> · 성미혜<sup>2</sup>

<sup>1</sup>화명일신기독병원 간호사, <sup>2</sup>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 of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and Self-efficacy on their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Kim, Bo-gyung<sup>1</sup> · Sung, Mi-Hae<sup>2</sup>

<sup>1</sup>Nurse, Hwamyong Ilsin Christian Medical Center, Busan; <sup>2</sup>Professor,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Nursing,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which effect to female college student'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correlational study and subjects were 127 female college students from two colleges in B metropolitan city. Th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June 1, 2016 to June 30, 2016.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f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and self-efficacy(KGSE). **Results:** The subject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differed according to the grade, major, smoking, and experience of weight loss of more than 10 kg within the last 3 months. The subject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xual knowledge ( $r=.39, p<.001$ ) and self-efficacy ( $r=.34, p<.001$ ),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xual behavior ( $r=-.23, p=.011$ ). Sexual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were influencing 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unting for 23.0%.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sexual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were factors affecting female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exual knowledge.

**Key Words:** Knowledge, Sexual behavior, Self-efficacy, Reproductive health, Femal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행동은 사회구조 속에서 통제되므로, 사회가 변하면서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함께 변하면 결국 성행동의 양상도 변화한다[1]. 최근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개방적 가치관 및 문화의 유입 및 정보매체의 발달로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변화는 성적활

동이 활발해지는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성이 대학문화의 한 단면으로서 대학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왜곡된 성지식과 성정보로 인해 적절치 못하게 반응하여 여러 가지 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3].

지식은 건강증진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위험한 행동은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4], 성지식은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을 앞서 습득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비교

**주요어:** 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생식건강, 여성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보경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Inje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ung, Mi-Hae

Professor, 75, bolji-ro, Busanjin-gu, Busan, Korea 47392 Injr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Nursing

Tel: +82-10-7223-3844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mailto:nursmh@inje.ac.kr)

Received: 4 April 2017 Revised: 28 April 2017 Accepted: 28 April 2017

적 쉽게 할 수 있으며 성행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5]. 특히 대학생의 성지식은 이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6], 대학생의 성지식과 이들의 성행동,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다른 시기보다 성적 활동도 활발해지는 반면, 성적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성에 관한 가치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따른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성적 접촉 등 성 건강의 신체적 측면인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해지게 되며, 이성과의 성행동에 의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게 된다[5-6]. 대학생 특히 여대생의 성교 경험은 2001년 14.5%에서 2014년 33.7%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7]. 질병관리본부의 성매개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여대생에 해당하는 20~24세 여성의 성 매개 감염률은 2010년에 1,070명에서 2016년에는 2,829명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8]. 이와 같이 여대생의 성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대생의 성병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생식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질환에 따라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질 수 있고 치료지연에 따른 생식건강문제의 발생 및 불임과 같은 생식건강의 피해가 막중하다[9].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 혼전 성교 경험자의 20.6%가 임신경험이 있었으며,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 모두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불완전한 임신종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부담과도 직결되고,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이처럼 성행동은 그 행위 자체로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며, 생식건강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하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성과 관련된 위험 행동을 감소시킨다[12-13]. 또한 성적 위험행동을 제한하는 자기효능감은 성지식과 연관되어 있다[4].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는 물론 성지식과도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과 성지식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성건강과 생식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9]와 대학생의 성지식[2], 성태도 [1,3]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1,5] 등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한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에 대한 연구는 성태도와

성행동[10], 생식건강증진행동[6]과 건강증진생활양식[12], 건강증진행위 관련 요인[14] 등이 있으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요인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향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4.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15]를 근거로,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요인 7개(흡연, 음주, 운동, 규칙적인 식사,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03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해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총 127부 (97.7%)를 최종 자료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성지식 : 성지식 측정도구[16]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생식생리 8문항, 성 심리 3문항, 임신 8문항, 피임 및 낙태 5문항, 성병 및 AIDS 10문항, 성폭력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문항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계산하였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5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성행동 : 성행동 측정도구[17]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성교제, 성관련 매체 접촉, 이성교제 깊이, 임신 및 낙태시킨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를 1점, '아니다'를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7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chwarzer와 Jerusalem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의 한국어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KGSE) [18]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전 세계 3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웹사이트(<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 10문항으로 '전혀 아님' 1점에서 '매우 그러함'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4) 생식건강증진행위 :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도구가 각각 구별되어 있다. 여학생용 도구는 안전한 성행위 4문항, 성행위 책임감 4문항, 생식기 건강관리 4문항, 성병예방 3문항, 위생관리 3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1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1041024-AB-N-01-20160223-HR-365)을 받은 후,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B광역시 소재의 2개의

전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과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연구자는 간호사로서 설문 대상 학생들과 관련성이 없으며 대상 학교도 편의 표출한 것이므로 가능한 위계관계에 의한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은 직접 대면하여 여대생에게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을 거부한 경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생식건강증진행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산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제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넷째,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해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였고, 2단계로 성지식, 성행동과 자기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44세로, 21~25세(76.4%)가 많았고, 학년은 2학년이 63.8%(8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은 보건계열이 67.7% (86명)이었다. 종교는 없는 대상자는 70.9%(90명)로 많았으며, 가족과 동거중인 대상자는 78.7%(100명)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자택거주가 76.4%(97명)이었으며, 한달 평균 용돈은 40.23만원으로, 30만원 이하가 49.6%(63명)이었다. 하루 3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대상자는 35.4%(45명)이었고, 흡연은 피우지 않는 대상자가 78.8%(100명)로 가장 많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35.4%(45명)이었고, 음주를 하는 경우는 74.8%(95명), 최근 3개월 동안 10kg 이상의 체중감소를 경험한 대상자는 2.4%(3명)이었다. 이성교제는 현재 사귀고 있는 경우가 51.2%(65명)이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F(p)
Age (years)	≤20	25	19.7	3.10±0.56	0.75(.477)
	21~25	97	76.4	3.22±0.45	
	≥26	5	3.9	3.08±0.44	
	M±SD	21.44±1.73			
Grade	1st <sup>a</sup>	19	15.0	2.92±0.58	4.40(.014) a,b<c <sup>*</sup>
	2nd <sup>b</sup>	81	63.8	3.20±0.44	
	3rd <sup>c</sup>	27	21.2	3.32±0.40	
Major	Health-related	86	67.7	3.26±0.43	2.81(.006)
	Health-unrelated	41	32.3	3.02±0.51	
Religion	Yes	37	29.1	3.23±0.42	0.70(.482)
	No	90	70.9	3.16±0.49	
Type of living	With family	100	78.7	3.22±0.46	1.62(.201)
	With others	14	11.0	3.00±0.47	
	Alone	13	10.3	3.11±0.55	
Type of residence	At home	97	76.4	3.23±0.46	1.32(.272)
	Self-boarding & rent	28	22.0	3.07±0.51	
	Others	2	1.6	3.03±0.51	
Allowance (10,000won/monthly)	≤30	63	49.6	3.20±0.49	0.31(.736)
	31~50	46	36.2	3.19±0.44	
	≥51	18	14.2	3.11±0.52	
	M±SD	0.23±29.05			
Regular 3 meals a day	Yes	45	35.4	3.26±0.43	1.35(.179)
	No	82	64.6	3.14±0.49	
Smoking	Current <sup>a</sup>	14	11.0	3.00±0.56	3.69(.028)
	Past <sup>b</sup>	13	10.2	2.94±0.36	
	No <sup>c</sup>	100	78.8	3.24±0.45	
Regular exercise	Yes	45	35.4	3.17±0.43	-0.24(.805)
	No	82	64.6	3.19±0.49	
Alcohol drinking	Yes	95	74.8	3.19±0.49	0.22(.823)
	No	32	25.2	3.17±0.41	
Weight loss over 10kg (past three months)	Yes	3	2.4	2.57±0.16	-2.32(.022)
	No	124	97.6	3.20±0.46	
Relationship	Current	65	51.2	3.15±0.49	1.25(.288)
	Past	52	40.9	3.19±0.42	
	No	10	7.9	3.40±0.54	

\* Scheffé test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학년(F=4.40, p=.014), 전공(t=2.81, p=.006), 흡연(F=3.69, p=.028), 최근 3개월 동안 10kg 이상의 체중감소 경험(t=-2.32, 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은 3학년(3.32±0.40)이 가장 높았고 2학년(3.20±0.44), 1학년(2.92±0.58)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é 검정 결과 3학년이 1학년, 2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40, p=.014). 전공은 보건계열(3.26±0.43)이 비 보건계열(3.02±0.5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은 피우지 않는다(3.24±0.45)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피운다(3.00±0.56), 예전에 피웠으나 현재는 안 피운다(2.94 ±0.36)라고 응답한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Scheffé 사후검정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최근 3개월 동안 10kg 이상의 체중감소를 경험한 대상자(2.57±0.16)는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3.20±0.4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의 성지식은 총 35점 만점에 최소 0점, 최대 33점으로, 평균점수는 24.67 ±5.91점이었다. 대상자의 성행동은 총 17점 만점에 최소 0점, 최대 0.71점으로, 평균점수는 0.17±0.09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총 4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2.68±0.41점이었다.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총 4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3.18±0.47점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Self-efficacy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27)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Sexual knowledge	0~35	0.00	33.0	24.67±5.91
Sexual behavior	0~17	0.00	0.71	0.17±0.09
Self-efficacy	1~4	1.00	3.90	2.68±0.4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1~4	1.89	4.00	3.18±0.47

**4.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성지식( $r=.39, p<.001$ )과 자기효능감( $r=.34, p<.0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생식건강증진행위의 모든 하부영역들도 성지식과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행동( $r=-.23, p=.011$ )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Self-efficacy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27)

Variable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Self-efficacy
	$r(\rho)$	$r(\rho)$	$r(\rho)$
Sexual knowledge	1		
Sexual behavior	-.06 (.516)	1	
Self-efficacy	.42 (<.001)	.00 (.997)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39 (<.001)	-.23 (.011)	.34 (<.001)

**5.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석 전 오차 항들 간에 자기상관이 있는지 통계량을 구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03으로 2근방 이어서 오차항들 간에는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지 케이스 진단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잔차가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82~1.00로 모두 .1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0~1.21로 모두 10미만의 값으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척도인 학년(3학년 기준), 전공(보건계열 기준), 흡연(비 흡연 기준), 체중감소(경험 안함 기준)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과거 흡연경험( $\beta=-0.17, p=.049$ )과 최근 3개월 동안 10kg 이상의 체중감소 경험( $\beta=-0.24, p=.006$ )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의 주요변수를 투입하여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회귀분석 2단계에서 성지식( $\beta=0.25$ )과 성행동( $\beta=-0.17$ )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23.0%를 설명하고 있었다( $F=5.08, p<.001$ ).

**논 의**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지식 점수는 총 35점 만점에 평균 24.67±5.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100점 만점에 69.58점(35점 환산 24.3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100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76.58점(35점 환산 26.80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는 서울지역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와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대학생이 서울 및 타 지역 대학생에 비해 성지식이 낮게 나타나 지역별로 성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행동 점수는 17점 만점에 평균 0.17±0.09점으로 선행연구[16]에서 성행동이 100점 만점에 평균 30.52점(1점 만점 환산 시 0.31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1~2학년의 비율이 78.8%인데 비해 선행연구[17]에서는 3~4학년의 비율이 75.4%로 학년 비율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Table 4.** Factors Affecting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27)

Predictors		B	SE	$\beta$	t	$p$
Constant		59.86	1.54		38.87	<.001
Grade*	1st	-2.86	3.22	-0.12	-0.89	.376
	2nd	-0.12	1.90	-0.01	-0.06	.949
Major*		-2.82	2.02	-0.16	-1.39	.166
Smoking*	Past	-4.81	2.42	-0.17	-1.99	.049
	Current	-2.30	2.47	-0.09	-0.93	.354
Weight loss over 10kg-past three months*		-13.41	4.75	-0.24	-2.82	.006
Adj-R <sup>2</sup> =.12, F=3.73, $p$ =.002						
Constant		42.70	5.57		7.66	<.001
Grade*	1st	-0.26	3.16	-0.01	-0.08	.934
	2nd	1.27	1.87	0.07	0.68	.497
Major*		-2.18	1.91	-0.12	-1.14	.256
Smoking*	Past	-3.23	2.31	-0.12	-1.40	.164
	Current	-1.46	2.34	-0.05	-0.62	.534
Weight loss over 10kg-past three months*		-6.68	4.83	-0.12	-1.38	.169
Sexual knowledge		0.36	0.14	0.25	2.60	.011
Sexual behavior		-0.88	0.41	-0.17	-2.12	.036
Self-efficacy		0.34	0.19	0.17	1.80	.074
Adj-R <sup>2</sup> =.23, F=5.08, $p$ <.001						

\* Dummy variable: Grade(Reference=3rd), Major(Health-related=0, Health-unrelated=1), Smoking(Reference=no), Weight loss over 10kg-past three months(no=0, yes=1)

2.68±0.41점으로,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평균 2.76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대[20]는 것을 볼 때, 본 연구에서 1~2학년의 비율이 78.8%이었고, 여대생 대상의 연구[19]에서도 1~2학년의 비율이 72.2%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성장, 발달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1]. 따라서, 대학의 수업과 동아리와 같은 그룹 활동을 통하여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평균 3.18±0.47점으로,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평균 3.04점으로 나온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히려 건강을 잃는 경우가 흔하다[22]. 따라서 여대생이 자신의 생식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생식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들 스스로 생식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

는 학년, 전공, 흡연, 최근 3개월 동안 10kg 이상의 체중감소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은 보건계열이, 체중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흡연은 생식건강에 유해한 행위이며[15], 대학생의 흡연 유무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에 차이가 있고, 흡연자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무관심하다[23]. 따라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의 유무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지식, 성행동, 자기효능감과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성지식( $p < 0.01$ ), 자기효능감( $p < 0.0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행동( $p = 0.011$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식건강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6]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대생의 지식수준이 높으면 건강증진행위 실천률이 높고[24], 자기효능감은 건

강과 관련된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25], 여대생의 성지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성지식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이들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행동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지식 도구가 생식생리를 포함해 임신, 성병의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성행동의 도구는 그 중 일부인 이성교제 및 임신이나 낙태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을 앞서 습득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습득한 성지식이 성행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추후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지식( $\beta = 0.25$ )과 성행동( $\beta = 0.17$ )으로, 이들 변인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23%를 설명하고, 성지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 $\beta = 0.25$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므로[5],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와 실용 가능한 피임법에 관한 지식의 전달을 포함하여 심리, 정서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의 전달을 위한 성지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성행동 또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행동 자체는 생식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이런 성행동을 적게 하는 것 자체가 생식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행동에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대상자 스스로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전공, 흡연, 체중감소는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대생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년, 전공보다는 성과 관련되는 지식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흡연과 체중감소와 같은 건강습관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건강습관과 생식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여[7],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에서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생식과 관련된 건강습관들은 여대생의 생식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여대생들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생식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지식, 성행동이며, 가장 큰 영향요인은 성지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성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신체적 변화와 활용가능한 지식과 정신 심리,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행동으로 나타났으므로, 개개인의 위험한 성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지식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성지식과 성행동이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규명된 결과이므로 전체 여대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지식과 성행동이 생식건강증진행위를 21.6%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지식을 위협한 성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생식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여대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여대생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구조모형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Sohn AR, Chun SS.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2005;18:73-100.
2. Yoo GS, Kang SH.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0;15(1):101-118.
3. Kim SH, Yoon WC.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2;26(2):248-257.
4. Ganga M, Mary AS, Robert S. HIV/AIDS knowledge, self-efficacy for limiting sexual risk behavior and parental monitoring.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16;31(1):63-69. <http://dx.doi.org/10.1016/j.pedn.2015.06.015>
5. Kim NH, Park J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5;7(2):17-42.
6. Kim MS, EO YS. A study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5;21(2):140-147.
7. Jo HY, Kim YH, Son HM.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2014;31(5):29-43.
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Internet]. Cheongju:Author;2016 [cited 2016 October 21]. Available from: <http://is.cdc.go.kr/dstat/jsp/stat/stat0105.jsp>
9. Shin KR, Park HJ, Bae KE, Cha CY.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0;22(6):624-633.
10. Ko YS.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1. 89 p.
11. Hwang NM. Policy suggestions for reducing the pregnancy wastag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7;111:50-62.
12. Kim MH, Jeon MH. Predictor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s in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3):293-304.
13. Do ES, Seo YS.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2):129-136.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29>
14. Chung YH, Seo NS, Moon SH. Related factor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2011;12(2):29-42.
15. Kim YH, Son HM. Affecting 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4):1935-1950.
16. Jeon GS, Lee HY, Rhee SJ.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4;21(1):45-68.
17. Jo HY. Research on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depending on adult attachment [master's the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2012. 55 p.
18. Schwarzer R, Jerusalem 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Internet]. Berlin: Author; 1994 [cite 2016 February 1].
19. Park HJ, Kim MY, Jung DY. The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the mental health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8;15 (4):513-521.
20. Oh HK. A stud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03;15(2):278-286.
21. Hong SR. Perceptions of the self-efficacy of youth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1;29(6): 71-87.
22. Paek KS, Choi YH.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3;20(2):127-147.
23. Kim MO, Yu M, Ju SJ, Kim KS, Choi JH, Kim HJ. Depression cogni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smoking and non-smok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3;30(3):35-46.
24. Kim SO.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mass index, nutrition knowledge and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6;18(2):87-93.
25. Monique J. A concept analysis of self-efficacy and adolescent sexual risk-taking behavior. *Nursing Forum*. 2015;50(1):31-36.